

10월 8일 겔 37:1-12 마른 뼈와 군대

에스겔 선지자는 본래 레위지파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인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대 청년기에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해야 할 에스겔이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그에게 남다른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 자신이 맡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가 쓸모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기에,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만 사로 잡혀가는 제 1차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포로 잡혀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비참하고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잡혀간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은, 조국을 잃어버리고 먼 이국에서 절망 가운데 포로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포로로 잡혀와 소망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은 포로생활을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니,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여러가지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환상들은 비전과 소망을 제시하는 환상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환상 중에 대표적인 환상입니다.

사실 당시 유다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는 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유다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도 계시고, 포로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계심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장 마지막 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에 함께 계신다**”란 뜻입니다. 즉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 속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때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나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렘 29: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때로 어려운 광야 길이나 포로생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심판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연단시켜 정금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같이 1 절과 2 절을 읽습니다.

어느날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공동묘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찬 공동묘지였습니다.

성령님은 에스겔을 그 뼈들 한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뼈가 무수히 많다는 것과, 그 뼈들이 너무 오래 되어서 바싹 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같이 3 절을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한 번 에스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마른 뼈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모슬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인도나 파키스탄의 불교 힌두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대의 마른 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운 미국 땅이지만, 지금 미국에도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감동이 없고, 현재의 쾌락과 편안함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도 많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래와 희망이 없다면, 불쌍한 마른 뼈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에게 한 이 질문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다같이 4 절을 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삭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마른 뼈가 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영혼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죽어서 바삭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에스겔이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살리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내 입장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 장 말씀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민 11:15)

지금도 너무 힘들고, 앞으로도 너무 힘들 것이 뻔하니 지금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만나만 먹기가 지려우니까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듣기가 너무 힘들니까 자기를 죽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모세였는데, 왜 이런 나약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급자와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시요 공급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걱정 할 일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시키시는대로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다같이 9,10 절을 읽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마른 뼈들,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마른 뼈같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절망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가 지은 더러운 죄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고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케 임하게 하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마른 뼈같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들을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순결한 믿음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없이, 내 계산과 내 욕심과 야망으로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소원으로, 내 바램으로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짝 말라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것을 따지기 전에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성경에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에스겔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강하고 굳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같이 11 절을 읽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징벌을 받고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마른 뼈는 아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던 유다 민족의 자화상입니다. 성전은 훼파되었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노역에 끌려가고, 여인들은 겁탈을 당하고, 노인들과 아이들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고 바램도 없고, 오직 절망 밖에 없는 모습이지요. 도저히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요.

다같이 12 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뒤,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죽은 바와 다름없는 마른 뼈와 같은 너희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은혜받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집니다.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건강, 사업, 가족관계,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스겔과 유다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능력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하여,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안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심령 속에 부딪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심령 속에 부딪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부딪치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만 보고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충만한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대적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망하게 됩니다.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회복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만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짓 한 번이면, 인생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말라 비뿔어진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를 대언하자, 다시 살아나서 엄청난 군대로 변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고, 기대하고,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항상 은혜를 소망하는 맘으로 살면, 하나님의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까 부른 찬송대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대를 두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물론 당장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절망스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기대를 주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회복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한, 그 어떤 대적도 감히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른 뼈를 살리셔서 큰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마음에 부딪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